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**2023. 2. 21.(화) 11:00 < 2.22.(수) 조간 >**	배포 일시	2023. 2. 21.(화)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	책임자	과 장 조웅환 (044-203-4310)
	기계로봇항공과	담당자	사무관 이재호 (044-203-4318)

첨단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나온다

- 1차관 주관, 「첨단로봇 전략 협의체(Alliance)」 발족식(Kick-off)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2.21(화) 17시10분 분당두산타워에서 『**첨단로봇 전략 Alliance**』 **Kick-off 회의**를 개최하였다.

○ 오늘 회의는 **「첨단로봇 산업 전략 1.0」** 마련을 위해 **민·관간 협의를 강화**하고, **신산업으로 주목**받고 있는 **로봇산업을 육성·지원**하기 위한 **실천적인 전략**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.

○ 아울러 로봇 업계에서 느끼는 **현장애로**와 **정부차원의 건의사항**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되었다.

< 첨단로봇 전략 Alliance Kick-off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3.2.21.(화) 17:10~18:00, 경기도 성남시 분당두산타워 27층 대회의실
- 참석기관 : 산업부, 한국로봇산업진흥원, 두산로보틱스, LG전자, KT, 뉴로메카, 로보티즈, 코모텍,
- 논의 내용 : ① 「첨단로봇 산업전략 1.0」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
  ② 로봇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

□ 장영진 1차관은 "**로봇**은 인공지능(AI), 5G, 첨단 반도체 등 **신기술이 집약된 기반 기술**로, 산업현장에서 로봇의 활용은 **산업 전반의 생산성**을 높이고,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**산업재해를 줄이는 유효한 대응 수단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다" 고** 언급하며,

○ 로봇의 적극적 활용뿐만 아니라, 로봇산업을 **미래 수출성장동력**으로서 **우리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**시킬 **유망 신산업으로 육성**하려면 **로봇 전략이 필요한 시점**" 임을 강조하였다.

□ 회의에 참석한 로봇 관계자들은 **국내·외 수요 창출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** 등을 지원할 **새로운 전략의 필요성**에 뜻을 같이하면서 정부가 **미진한 국내 수요**, **부족한 전문인력**, **관련 법령 미비**로 인한 불확실성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.

○ 특히, **자율주행로봇**을 활용한 **다양한 서비스 사업이, 규제로 인해 지연**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**조속한 규제 개선이 필요**함을 강조하였다.

□ 이에 장영진 차관은 "이번 전략에는 **국내 로봇기업의 제조역량 강화, 3D업종 등 중점분야에 대한 로봇 보급확대,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등 로봇 친화적 환경 구축** 등을 담을 계획이며,

○ **3월 중**에 로봇업계 수요를 반영한 「**로봇 규제혁신 로드맵 2.0**」을 **발표**할 예정" 임을 밝혔다.

□ 산업부는 오늘 **첨단로봇 산업 Alliance 출범**을 계기로, **업계와 적극 소통**하고 **정책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**하여 **빠른 시일내에 전략을 마련**할 예정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